

삼성, 올해 시설투자 84.4조... HBM·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전년보다 시설투자 31.7조 늘려
반도체 76.8조·디스플레이 3.9조
HBM4 매출 3배↑·비중 60% 달해
내년 HBM 공급협상 완료·추가 요청
美 테일러 공장 추가 건설도 검토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 시설투자를 84조4000억원으로 확대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파운드리 생산 능력 확충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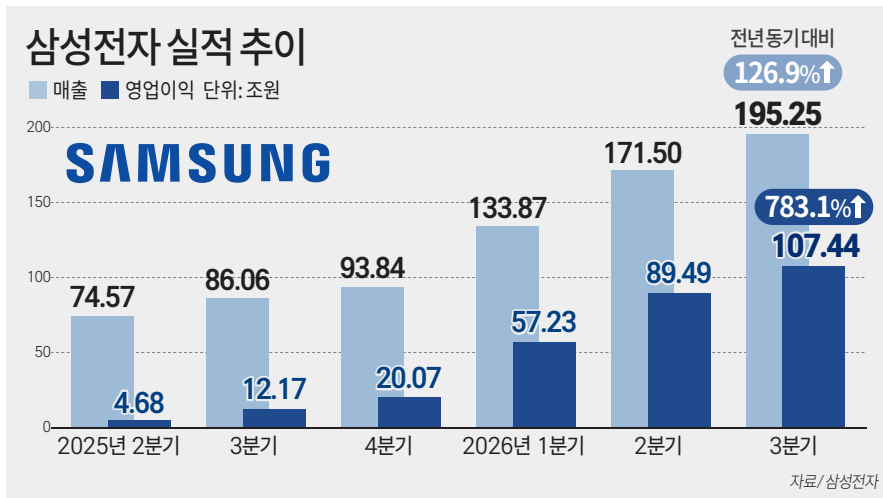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 시설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31조 7000억원 증가한 84조 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76조 8000억원, 디스플레이에 3조 900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3분기에 집행한 시설투자는 29조원으로 전분기보다 12조2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DS부문에 27조2000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누적 투자액은 56조9000억원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메모리 신규 생산시설과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 투자를 집중할 방침이다.

◆HBM4 매출 3배 증가… 내년 공급 물량 판매 완료

이 같은 투자 확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95조2532억원, 영업이익은 107조4405억원으로 4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특히 DS부문이 106조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전사 실적을 견인했다.

메모리사업부는 HBM4와 서버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판매 확대에



힘입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3분기 D램 평균판매가격(ASP)도 전분기보다 약 20% 상승했고, 낸드플래시는 10% 후반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삼성전자의 3분기 HBM4 매출은 전분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 HBM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수준까지 확대됐다. 삼성전자는 내년 HBM4E 양산을 시작해 하반기부터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전략마케팅실
장 부사장은 이날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
서 "내년 HBM 공급 물량에 대한 가격 협
상을 모두 마쳤으며 주요 고객사로부터
추가 공급 요청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8
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AI 데이
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는 반면 신규 공장
건설과 장비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전자 등은 생산시설
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되 설비 도입은 고객
사 수요에 맞춰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낸드사업에서도 AI 에이전트의 연산과

정에서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고성능 SSD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고용량 제품 공급을 늘리는 한편 내년 초 256테라바이트(TB) 용량의 QLC SSD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시스템 LS이 사업부도 하반기 모바일 신제품용 시스템온칩(SoC)과 2억화소 이미지센서 판매 확대에 매달릴 예정이다.

파운드리사업부 역시 HBM4용 베이스 다이와 첨단 공정 제품 판매 증가로 실적이 개선됐다. 강석채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부사장은 올해 2나노 공정 수주과제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 테일러 공장의 추가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품값 상승에 DX 8000억원 적자

반면 완제품을 담당하는 다비이스경험(DX)부문은 부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부담이 지속됐다. 3분기 매출은 52조 1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은 8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사
업부는 갤럭시 Z 폴드8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로 매출이 증가했으나 메모리 가격 상
승 영향으로 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했다. 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DA)
사업부 역시 원자재와 물류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DX부문은 내년에도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부담이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 다니엘 아라우조MX 사업부 상무는 “차기 갤럭시 S 시리즈와 폴더블 등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비중을 높이고 원가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제품 사업과 달리 삼성디스플레이는 주요 고객사의 신제품 공급 확대와 원가 절감에 힘입어 영업이익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하반기 전장·오디오 판매 증가와 미국 관세 환급 효과로 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향후 삼성디스플레이는 폴더블 패널과 8.6세대 정보기술(IT)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하반기는 폭스바겐 등 주요 고객사에 차량용 텔레매틱스 공급을 확대하고 프리미엄 오디오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현금배당을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주당 4601원으로 결정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현대차, 美 공장 6400억 투자 하이브리드·EREV 생산 확대

엘라배마 공장 전동화 설비 확충
투싼 하이브리드·싼타페 EREV 투입
현지 생산 늘려 관세 부담 완화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 4억5000만달러(약 6400억원)를 투자해 하이드리드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생산 기반 확충에 나선다. 이는 북미 시장에서 친환경차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현지 생산을 확대해 관세 부담을 줄이고 시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현대차 앨라배마 제조법인(HMMA)은 28일(현지시간) 앨라배마 공장에서 투자 기념행사를 열고 생산시설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투자는 현대차그룹이 2028년까지 추진하는 260억달러(약 3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의 일환이다.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엔진 생산시설 확대와 전동화 파워트레인 생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대차는 신규 엔진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EREV 기술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차세대 투싼과 쏘타페 부분변경 모델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금형, 제조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유연하게 생산하고 북미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투싼 하이브리드의 현지 생산은

관세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현재 투싼 하이브리드는 국내 울산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미국 현지 생산이 본격화하면 수입 관세 부담을 낮추고 공급망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현대차가 이처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미국 판매 실적 상승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에 따르면 올해 9월 미국 판매량은 7만 7439대로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했다. 3분기 판매량은 24만6896대로 전년 동기보다 3% 늘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9월 하이브리드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해 전체 판매의 28%를 차지했다. 투싼과 쏘타페 판매도 각각 32%, 21% 늘어 현지 생산 확대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줬다. 현대차는 현지 생산 차종과 생산능력을 확대해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높여 가격 경쟁력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앞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2026 오토모티브뉴스 कांग्रेस'에서 '앨라배마 공장에서 투싼 하이브리드를 생산하고 이후 섀터페 EREV도 투입할 계획'이라고 신규 투자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KB금융그룹 | 국민·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연금, KB증권이 먼저 다가갑니다

KB증권 퇴직연금

IRP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평생 면제
*펀드 보수 및 유관기관 수수료 별도 발생 가능

ETF, 리츠, TDF, 채권

다양한 투자상품 모바일로
실시간 거래

KB증권 연금마스터

전문가의 탄탄한 연금컨설팅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4474호(2026.09.14~2027.09.13)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환율 변동>·<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비대면 계좌) HTS 0.014%~0.015%, 모바일 0.119%~0.12%(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미국 주식거래 수수료 온라인 기준 0.25%(제비용 별도, 매도 시 0.00206%와 \$0.01 중 큰 금액(추후 변경 가능))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화 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 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부과 *IRP 수수료: 연 0.20%~0.25%(단, 비대면 개설 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면제) *DC 수수료: 연 0.20%~0.50% *과세 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펀드보수 및 유관기관 수수료 별도 발생 가능하며, ETF 거래 비용 등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 증권